

제 77 호

서기 2002년(단기4335년) 10월 15일 (화)발행
 서기 1983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2217-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發行人 : 金 璩 會
 編輯人 : 金 命 會
 印刷人 : 宋 載 勳
 發行處 : 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微慶洞 112-49
 郵便番號 : 130-091
 電話 : (02)2244-3717, 2217-3717
 FAX : (02)2243-1073
 홈페이지 : iandongkim.com

行 事

時 享 日 程 表

先 祖 位	享 祀 日	曜 日	墓(壇) 奉 安 所
忠烈公諱方慶 之墓 冷平國夫人竹州朴氏 之壇	11월 13일 陰10월 9日 午前 9時	水	慶北 安東市 祿轉面 竹松里 慶北 安東市 豐山邑 檜谷里
文英公諱詢 之墓	11월 11日 陰10월 7日	月	京畿 安養市 東安區 冠陽洞 後山
文肅公諱永墩 之壇 上洛伯公諱縝 之壇 提學公諱益達 之壇	11월 10日 陰10월 6日	日	忠南 天安市 竝川面 佳田里
貞簡公諱永熙 之壇 領三司事公諱藏 之壇 按廉使公諱士廉 之墓	11월 9日 陰10월 5日	土	忠北 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掌令公諱玟 之壇 典書公諱成牧 之墓	11월 5日 陰10월 初丁日(10月 1日)	火	忠南 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密直司使公諱七祐 之壇	11월 3日	日	京畿道 抱川郡 東面 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 之壇	10월 13日	日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文溫公諱九容 之壇	11월 5日 陰10월 1日	火	京畿道 抱川郡 倉水面 伍佳里
都評議公諱九鼎 之墓	11월 8日 陰10월 4日	金	慶北 義城郡 義城邑 杏峴里
翼元公諱士衡 之墓	11월 10日 陰10월 6日	日	京畿道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掌令公諱長 之壇 書雲觀正公諱綏 之壇	11월 5日 陰10월 1日	火	京畿道 義旺市 浦一洞 廣谷里
安靖公諱九德 之墓	11월 8日 陰10월 4日	金	京畿道 驪州郡 南面 元承里
副使公諱天順 之壇	11월 11日 陰10월 7日	月	忠南 洪城郡 銀河面 大用里
判書公諱植 之壇 大提學公諱承用 之壇 評理公諱厚 之壇 郡事公諱七陽 之墓	陰 3月 16日		全南 康津郡 鶴川面 土馬里 南山
大護軍公 之墓	陰 3月 14日		全南 羅州郡 金川面 竹村上(村玉峙)

*忠烈公 時祭는 종전과 같이 오전 9시에 奉行하고 바로 회곡동에 가서 할머니 향사를 올린후 점심 식사를 하오니 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忠武公 金時敏將軍 誕辰448周年 紀念 茶禮奉行

지난 9월 23일 11시에 將軍의 誕生地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갯밭)에서 장군의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허용기씨의 주관으로 천안시장 교육장, 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이 고장 유명인사와 우리 안동김씨 종친등 100여 인사들의 참석리에 공의 탄신 448주년 기념 다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식전에 탄신축하 풍물놀이 있었으며 본 행사 개최 선언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내빈 소개와 忠武公 記念事業會 경과보고에 이어 충무공 시민장군 일대기 낭독을 하고 학생 백일장 시상식을 한 다음 허

용기 행사 추진위원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안동김씨 대종회장의 격려사를 사무국장이 대독하였다.

다음으로 다례 행사에 들어가 성무용 천안시장이 분향 헌작하고, 허용기 추진위원장이 아헌을, 종종 대표로 사무국장이 종헌을 하였으며 告祝은 南應宗親께서 하였다.

끝으로 내빈들의 헌화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다과회순으로 忠武公 탄신 448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쳤다.



자연재해지역
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

天災의 水魔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국의 일가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원도 강릉,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지구에 사시는 일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그 외 지역에도 뜻밖의 많은 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국의 일가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으며 일찍이 찾아 뵈옵고 도읍고 격려하여 용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조님의 음덕과 가호로 하루 빨리 복원되시기를 온 종인이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宗會 會長 金璩會
任員 理事 一同

알 림

翼元公派 宗親들께 알립니다.

派祖 時享日이 鼻祖이신 忠烈公. 할 아버지 時享日과 겹쳐있어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못하던 차에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時祭日을 變更할 것을 決議하여 總會에서 滿場一致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승인하였다.

종친제현은 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 시향일 음 10월 9일 11시
변경 : 시향일 음 10월 6일 11시

公 知 事 項

요즈음 들건데 大宗會임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국 각지의 우리 종친들을 찾아가서 대종회에서 선세유적사업과 문헌발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종친들의 정성어린 협찬을 바란다면 자신이 이에 대한 모금책을 맡고 있음으로 몇 백만원만 문중에서 협찬해 달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혹자 이런 일에 속지 않을까 염려되어 종친들에게 알려 드리오니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현혹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大宗會에서는 유적 사업이나 文獻集發刊事等 그 무엇도 하는 일이 없음을 거듭 알려 드립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보 편집실

백범(白凡) 김구선생 환영문

서기 1945年(乙酉)光復후 다음해 3月 3日 白凡 金九先生의 한국을 宗親들이 安養 文英公 齋舍에서 歡迎會를 開催하고 歡迎辭를 한 歡迎文을 紹介합니다.

白凡 金九先生 환영문

봄이 무궁화 강토에 돌아오니 꽃이 다시 화려하게 피었고 宗親간의 情誼가 榮光스럽게 새롭도다. 先生이 故國에 돌아오니 이제 나라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든든하다. 三千里疆土 안에 血氣를 지니고 살아 있는 사람치고 先生을 泰山이나 北斗星과 같이 우러러 崇慕하고 著龜의 靈明과 같이 信奉 않는 者 없어 앞을 다투어 先生의 風聲에 달려가 追從하거늘 하물며 族黨의 末尾에 있는 저희들은 先生에 依持하고 欽慕하는 마음이 他人에 比하면 百倍나 되겠습니다마는 地方各處에 흩어져 살기에 아직까지도 問候를 못하고 이제서야 三月三日에 始興 先墓下齋舍(文英公)에서 尊駕를 맞이하고 歡迎會를 開催하여 여러 宗親들의 微細한 誠意나 表現하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先生은 英雄豪傑의 姿質을 지니고 무쇠와 같이 단단하고 화살같이 곧은 氣品으로 義理는 春秋大義에 두시고 忠節은 日星을 沖貫할만큼 崇高합니다.

四十年 歲月동안 海外에서 臥薪嘗膽하는 敵愾心으로 단 하루라도 寢食에

安過하지 아니 하셨습니다. 刀山劔樹와 같은 險難한 歲月로 頭髮이 다 희어지도록 나라 光復시킬 마음만 간직하고 내 一身은 돌아보지도 아니 하였습니다. 그대 外翁의 兇殘한 장수를 屠殺해서 國母의 원수를 雪辱하니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조롱(嘲弄)을 다행히 면하고 世界萬邦에 快哉라는 讚辭를 얻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大韓을 保佑하시지 난 乙酉年에 倭賊들은 참새 도망치듯이 쥐새끼 쥐구멍 숨는것처럼 다 쫓겨나니 三千里疆土는 回復되고 三千萬 生民들은 結縛된 쇠사슬에서 풀린 것처럼 解放되었으니 이는 先生이 萬死를 무릅쓰고 투쟁하신 힘이 아니고서는 어찌 能히 解放된 이 날을 맞이하고 살아 있음 이리요.

채찍적 우리 先祖忠烈公이 왜놈 나라를 膺懲한 功績이 高麗朝에 으뜸이 되었고 繼承에서 翼元公府君과 忠武公將軍은 或은 對馬島에서 戰捷하고 或은 晋州에서 戰死殉國한 功績과 忠烈이 國史에 輝煌하게 記錄되어 있습니다.

先生은 數百年후에 出生하여 三祖 忠節과 義烈을 繼承하시라 맨손으로 宇宙를 支撐하고 한나무 기둥으로 큰 官展을 바치고 있었으니 그 激昂된 忠肝에는 利器를 가진 兵力도 勇猛스럽지 않고 義憤이 넘쳐흐르는 義膽앞에는 鐵城같은 防衛도 無力하니 위로는 나라의

正統을 保護하고(이는 上海臨政을 뜻함) 아래로는 家閥의 名聲을 繼承하였도다.

千金이나 累巨萬鍾의 財貨를 草芥나 헌신짝같이 보고 여기시니 그 清廉하고 潔白한 志氣와 堅固하고 確實한 操行은 可히 天地神明에게 質問하여도 疑心이 없고 다가오는 後百世를 두고두고 보더라도 眩惑함이 없으리다.

원컨대 이제부터 앞날에는 健康하게 長壽를 이루고 業績이 날로 廣大되어 國內의 民心을 統一하고 世界의 耳目을 새롭게 하며 거의 끊어진 紀綱을 扶立하고 生民을 幸福스럽게 사는 仁壽의 地境에 오르게 하면 國家의 幸運이 至大할 것이며 우리 宗族의 榮光도 無雙할 것이로다.

翼元公21世孫 正會 지음
翼元公20世孫 在鶴 낭독

白凡先生歡迎文

春回 檉域花樹更榮先生歸國有人矣 三千之內凡有血氣者莫不仰之如山斗信之如著龜爭先趨走於下風況鄙等忝在族黨之末其所依仰倍百餘人而散在列邑尚稽問候茲以三月上巳日咸集于始興先墓下以迎尊駕用表諸族微忱之萬一竊惟先生以英雄豪傑之姿有鐵堅矢直之氣義秉春秋忠貫日星

海外四十年 席薪而嘗膽未能一日安於寢食 刀山劔樹頭髮盡白但知有國不知有其身 倭將之魁雪 國母之讐使吾東土幸免無人之譏而快有辭於天下萬邦矣天佑大韓往乙酉彼豐賊之逃影如鳥鼠匿三千里疆土化亡爲存三萬生靈若解鐵繩如非先生萬死之力安能有一生於此日哉 粵昔我先祖忠烈公膺儀儀績冠於勝國繼而翼元府君及忠武公或捷於馬島或殉於晋州其豐功峻烈已輝映竹帛矣先生生於數百載之下以承三祖之烈徒以隻手撐宇宙一木支大厦肝攸激利兵不足爲銳義膽所照鐵壁不足爲堅上而保國脉下而繼家聲芥視千金屣脫萬鍾其廉潔之志堅確志操可謂質鬼神而疑埃百世而不惑也惟願自今以往壽日益高業日益廣一海內之心新天下之目扶綱紀於既絕之餘躋生民於仁壽之域國家幸甚吾宗幸甚

樵夫問

선조의 숨결

淸風明을 노래한 栢谷 金得臣의 詩

栢谷 金得臣은 忠武公 諱時敏의 長孫이요, 南峯公 諱 緄의 長子이다. 서기 1604年(宣祖37年 萬曆甲辰)生이고, 서기 1642年(仁祖二十年)에 進士 서기 1662年(顯宗3年)에 增廣文科에 及第 掌樂正知製教를 歷任 嘉善同樞를 지내시고 安豐君에 封해 졌으며, 서기 1684年(肅宗10年甲子)8月 30에 卒하시고 忠烈祠에 配享하고 配位는 貞夫人慶州金氏이다. 늦게 文章으로서 名聲을 世上에 널리 떨치신 분 이시다. 지난번 金得臣 記念事業會 會長 최성균 證評 문화원장은 한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출신의 큰 시인이었음을 아는이가 많지 않음을 개탄하며 고장을 노래한 金得臣의 번역 시집을 발간하여 지역을 대표할 큰 詩

人임을 알고고져 충북대학교 임동철교수를 비롯 신범식 형석고등학교 교사, 유병택 도안우체국장 등의 연구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栢谷詩編譯本을 發刊하고 學術發表會를 開催하였다. 編譯은 林東喆 忠北大學校 教授 李斗熙, 申範植, 曹永任 外 여러분이다.

다음 公의 詩 몇수를 소개합니다.

古木寒雲裏 찬 구름 속의 고목
秋山白雨邊 소나기 내리는 가을 산
暮江風浪起 저물녘 강에 풍랑이 일어
漁子急回船 어부가 급히 배를 돌리네
-「龍湖」-

籬弊翁嗔狗 울타리 해쳤다고 늙은이 개를 욕하고
呼童早閉門 아이 불러 일찍 문을 닫는다.

昨夜雪中跡 어젯밤 눈속의 발자취 보니
分明虎過村 분명 범이 마을로 왔다 갔구나
-「田家」-

道谷洪君吐鳳才 驚人聲價越琪瑰
樽前醉態何時見 一日離腸費九廻
홍석기는 봉황의 재주를 토해내고
사람을 놀라게 한 명성 고운 옥보다 낫구나
술잔 앞에 취한 모습 어느 때 다시 볼까나
헤어지는 괴로움에 창자가 아홉 번이나
뒤틀렀다네

-「石花村因便奇洪元九」-

曲江遷客幾時廻 佛鬱離懷苦未裁
赤日上山銷薄霧 清泉走壑吼輕雷
類成吉夢題僧壁 強覓新詩倚石臺

可惜春光今已盡 紛紛花瓣委蒼苔

곡강(曲江)으로 옮긴 나그네는 몇 번이나 오셨나
불울(佛鬱)과 이회(離懷)의 괴로움은 헤아릴 수 없네
붉은 해 산 위에 떠오르니 열은 안개가 걷히고
갈자기에 흐르는 시내물 소리는 가벼운 우레 소리
자주 꾸는 길몽을 질 벽에 쓰며
애써 새로운 시상을 더듬으며 석대(石臺)에 기대었네
아쉽구나 봄날이 이제 벌써 다 스러져 가니
꽃잎들이 푸른 이끼 위에 어지러이 지네

안.사.연 소식

안.사.연 제1회 여름캠프(안동, 의성, 강진 지역 姓地 巡禮) 성황리에 진행

우리 홈페이지상에서 서로 만나 개방적이고 동호인적 성격으로 구성된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제1회 여름캠프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5개파문온공, 도평의공, 제학공, 군사공, 안렴사공에서 11가족 34명(대 학생 이상 성인-20명, 중고생 8명, 초등생-5명, 유아-1명)이 참석했는데 특히 榮煥 대총회 감사님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비롯한 8명 가족 전원이 참석하시어 행사를 더욱 빛내주셨다.

이 여름캠프는 휴가기간을 맞아 경북 안동과 의성군 사촌, 전남 강진 등을 찾아 중시조님을 비롯한 여러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적을 탐방함으로써 崇祖意識과 溫故知新을 새롭고 깊게 인식하는 기회를 갖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歷史意識과 孝敬意識을 습득케 하고,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하는 산 기회가 되도록 했다.

앞으로 안.사.연에서는 본 여름캠프 행사를 가능한 한 매년 장소를 바꾸어 정례행사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석자 명단과 일정별 행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의 <사이버 연구회>에 실었다 한다.

※참석자 명단(파명-인원수) : 榮煥(문-8), 在源(문-2), 瑩會(제-1), 潤萬(문-2), 友會(도-1), 勃籬(군-3), 柱會(안-4), 熙俊(도-2), 恒籬(제-4), 道中(도-3), 泰榮(문-3)

◎일정별 행사내용

1. 7.28(제1일)
• 안동지역:삼소재-안동 입향조(휘 언준) 묘소 참배-하회마을-학봉 김성일 고가-봉정사-회곡동 냉평국 대부인 영단 참배, 총렬공유허비, 상락재-상락대-개축한 음수재 착.숙박(민요 한가락, 캠프화이어 및 폭죽놀이, 장기자랑)



음수재에서

2. 7.29(제2일)
• 안동지역 : 총렬공 묘소 참배 및 고유제-안동문화원장 특별강연(“안동지역과 안동김씨”) -총렬공신도비-도산서

원-안동댐, 왕건촬영장, 민속박물관-영호루(총렬공시를 차운한 四行詩 짓기 백일장)-고운사
• 의성지역 : 도평의공, 감목공 묘소 참배-사촌마을 도착. 정중종친(도태과 만취당에서 숙박



총렬공 묘소

3. 7.30(제3일)
• 의성지역 : 만취당-사촌마을 문중 어른 예방-퀴즈대회-사촌마을 답사(사촌가로숲, 후산정사)-영귀정-행사 평가회 및 1차 해산. 일부 장대서원 방문. 일부 강진 방문팀 출발-거제도 착.숙박



사촌의 가로숲에서

4. 7. 31(제4일)
• 거제도·보성지역 : 해금강, 외도 관광-청마 유치환 생가-순천 송광사-대호군공파 집성촌 및 재실 방문(보성군 득량면 삼정리)-김구선생 은거지-강진 숙소 착. 숙박

5. 8. 1(제5일)
• 강진지역 : 군사공파 4위 묘소 참배(강진군 작천면 토마리)-군사공파 집성촌 방문(강진군 군동면 내동리)-시인 김영랑 생가-다산 초당-고려청자 박람회 행사장(이상 강진지역은 재이(군) 종친의 안내와 해설로 진행)-해남 윤선도 고가-서울행(전 행사 종료)
<기사제공 恒籬(提)>



군사공파 4 위묘소에서

안.사.연의 서운관정공파 및 개성윤공파 묘소 참배

안.사.연에서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의 서운관정공 묘소와 도평리의 개성윤공 영단을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 5개파에 총 10여명이 참석했는데 榮煥(문), 榮潤(문), 潤萬(문), 銀會(익), 勃籬(군), 泰瑞(익), 恒籬(제), 道中(도), 泰榮(문)이 모였다.

이날 일행은 서울 상일 지하철역에서 만나 1대의 승합차에 타고 남한산성을 1차로 관광한 다음,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경수마을의 서운관정공파 선조님 묘소로 향하였다. 멀리 대구에서 오신 道中(중진(도))의 정성이 놀라웠다. 서운관정공파 在峻 신임 회장님과 嘽永 전회장님께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 참배 일행을 친절히 안내해주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제3터널 바로 옆에 있는 서운관정공파 묘소들은 본래 현 위치에서 200m 아래 산모퉁이 부근에 있었는데,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1985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한다.

이곳은 <계족정형(鷄足鼎形)>으로서 닭의 세 발가락 형태의 명당터인데, 앞에는 시루봉이 중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었고, 산아래 경수마을은 서운관정공파의 집성촌이었다.

묘역은 전체가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단 왼쪽에는 휘 홍도(弘度), 오른쪽은 휘 첨(瞻), 중단의 왼쪽에는 휘 성



허난설현 묘소에서

립(誠立), 오른쪽은 휘 정립(正立) 선조의 묘소가 있었고, 하단 왼쪽에는 난설현 할머니의 어린 자녀 묘소, 가운데는 허난설현 할머니, 오른쪽에는 허난설현 시비가 있었다. 묘역 입구에는 도로공사와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세운 안동김씨 송덕비가 있었다.



개성윤공 묘소에서

이 송덕비 바로 뒤에 있는 개성윤공 선조님의 영단을 참배하고 난 뒤 일행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아름다운 배경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榮潤종친(문)택인 벽수장(碧水壯)으로 가서 식사와 여행을 가졌다. 이곳에서 일행은 앞으로의 안.사.연 운영과 홈페이지의 발전적 방안 등에 대해 오래도록 깊은 토론이 있었다.

<기사제공 恒籬(提)>

高麗崇義殿史 略記

高麗崇義殿史를 살펴보면 朝鮮太祖(李成桂) 元年 1392年(壬申)에 恭讓王을 杆城에 봉하고 왕의 동복(同腹) 아우를 麻田縣에 봉하여 高麗太祖와 恭愍王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여러 왕자들을 江華島와 巨濟島에 安置하여 祿米를 준 것이 처음 崇義殿이었다. 송의전은 원래 高麗太祖가 창업하기 전에 항상 麻田仰巖寺에 놀았는데 임금위에 나간후 소원을 기도하는 절로 삼았던 곳인데 나라가 망한 뒤에 고려태조의 영정이 항상 그 절에 있었던 까닭으로 이곳에 세웠다 한다(동국역대총목) 定宗元年(1399) 조선 태조가 권위하고 정종이 상왕이 되어 예조에 명하여 마전암암사 고려태조 영정을 모신곳에 따로 전각을 세워서 고려태조와 惠宗, 成宗, 顯宗, 文宗, 元宗, 忠烈王, 恭愍王 등 8王을 제사기로 의논을 정하여 六年만에 京畿觀察使에 명하여 짓고 儀禮를 하였다 한다(국조보감).

그 후 世宗7年(1425) 莫有司가 말하기를 本朝宗廟에는 다만 五室을 제사하는데 전조의 사당에는 八位를 제사하니 예에 합당치 않다 함으로 이때부터 高麗太祖, 顯宗, 文宗, 元宗, 四位로 축소 仲朔에 제사케 되어 지금까지 내려 오고 있다. 文宗元年(1451) 고려역대 제사하는 집을 송의전이라 이르고 송의전정에 功臣閣을 짓게하여 高麗功臣十六位를 배향케하고 왕위 제사와 함께 제사케 하였다. 이곳에 피쳐 있는 十六功臣은 다음과 같다.

高麗功臣 卜智謙, 洪儒, 申崇謙, 庚黔弼, 裴玄慶, 徐熙, 姜邯贊, 尹瓘, 金富軾, 金就礪, 趙冲, 金方慶, 安祐, 李芳實, 金得培, 鄭夢周 이다.

高麗崇義殿 重作上樑文

앞드려 생각하니 功이 萬世에 있으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되니 前朝에 일묘(一畝)의 宮을 세웠으며 허물어진지 또 百年이면 고치나니 聖朝(조선조)에서 七尺의 房을 만들도다. 아름답게도 建物は 사치를 더하였고 지금하게도 先祖의 은혜 갚음을 더 높혔도다.

삼가 상고하니 高麗太祖의 뛰어난 武勇을 하늘이 세우시니 위엄과 은혜가 바람처럼 움직였다. 이인(異人)이 黑金(철원)의 조짐을 보이니 호걸들이 마음을 돌렸으며 神靈한 地師가 靑木(松嶽)의 도읍을 가르치니 원근(遠近)이 소리에 응하도다. 계림을 얻고 압록강을 거두어 강토를 三韓에 정하고 말(馬)을 물리치고 낙타를 매게하고 관석(關石) 十訓을 後孫에게 전하니 기상은 宋太祖와 같고 규모는 신라혁거세(新羅赫居世)에 훨씬 지나쳤다. 또한 저 三宗은 故韓襄王의 가르침을 除하고 강한 이웃을 和親하니 최충(崔冲)이 文帝와 景帝의 세

상에서 공시(貢試)의 주위를 엄하게 하고 國老를 공경한데 비하였고 林完은 현명하고 성현다운 임금이라고 일컬었다.

元나라 임금을 변교(汧郊)에서 조현(朝見)하여 아홉번 전쟁의 재화입은 것을 면케하고 僞王溫을 제주에서 목베어 절단코 三別抄軍의 재앙을 쓸었으니 밖으로 치고 안으로 닦은 것이 아님이 없으며, 다 백성이 성하고 나라가 풍부한 것을 이루었네. 신하가 있어 누른 곤룡포 입은 임금을 도왔으니 전에 다섯 太師의 높은 功이 있었고 붉은 수건 쓴 도적을 소탕하였으니 뒤에 셋 元師의 큰 功을 일컬었다. 서희(徐熙)와 윤관(尹瓘)은 오랑캐를 내쫓아 국경밖에 물리치는데 武器를 쓸 필요가 없었고, 김취려(金就礪)와 조충(趙冲)은 나라를 편안케 하며 맹약(盟約)을 정함에 조용히 잔술(盃酒)을 앞에 놓고 이루었다.

풍진(風塵)은 서쪽 정벌에서 맑았으니 낙랑(樂浪)에서는 배진공(裴晉公)의 기풍이 있고 바다는 東쪽에 편안했으니 上洛에서는 한희음(韓維陰) 같은 피를 썼네. 姜仁憲이 山河같은 기운을 다했으니 세상에 드른 위대한 사람이요, 鄭文忠이 日月같은 빛을 내니 영구히 전하는 큰 절개라 忠臣과 良臣이 함께 빛난 운수에 즈음하니 功과 德이 아울러 역사에 나타났도다.

이 아미동(峨帽洞) 정결한 지경을 돌아보니 일찍 이것이 神聖王(太祖)의 소원을 기도하는 절이었다. 淸江의 적벽(赤壁江)은 세상 구경할 소원을 잊기 어렵고 병풍(屏風)에 임금의 용모는 달밤에 놀던 의관이 그대로 있는 듯하다. 五百年 나라 운수가 이미 끝났으니 사당제사의 소홀함을 슬퍼할제 한조각 땅에 향불이 오히려 있었으니 어찌 편안히 향사할 곳이 없으리요, 이러므로 朝鮮朝에서 이어서 두는 것이 옳다하여 朝鮮太祖元年에 이르러 높이는 儀式을 거행하였다.

비로소 歸義君에게 봉작(封爵)을 주어 마전읍(麻田邑)에서 제사를 받들고 이어서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일을 주관케 하여 부처모신 암자굴에 사당을 세웠다. 나라를 開創한 큰 功을 멀리 생각하였으니 중앙에는 금글자의 위패(位牌)가 엄연하고 이어 지은 어진 계통(系統)을 생각하였으니 東西에 붉게 새긴 위패로 合祭하였다. 현능(顯慶)에 이르러 더욱 큰 것이 있는지라 무릇 대궐(大闕) 法章을 거행치 안함이 없었다.

비로소 殿의 額號를 지어 崇義라는 이름을 걸고 두루 民間에서 찾아 순례(循禮)라는 이름을 주어 三品官의 비례(賓禮)로세 대접하니 周나라의 미자(微子)와 같고 우(虞)나라의 단주(丹朱)와 같도다. 十六功臣을 향사하는 뜰에 配

食하게 하니 漢나라의 운대(雲臺)와 같고 唐나라의 능연각(凌烟閣)과 같도다. 殿監任務를 승격(陞格)시켜 殿守로 삼고 郡守 품질(品秩)을 특별히 더하고 자제를 가르침에 敎官을 두니 禮를 베푼 것이 法도가 있었다.

거룩하다 列聖의 德意는 진실로 삼각(三格)의 아름다운 規模였다. 향기로 운 祭物이 처량(淒涼)하므로 몇번이나 잔악한 孫들이 대신해 이었으며, 연목(椽木)을 수리하면서 혹 가까운 신하를 시켜 제사하였다. 임진왜란에 도적이 불을 질러도 탄적이 없었으며 까마귀와 까치들이 집짓고 알 낳는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祭器를 훔치다가 붙잡히게 된 것은 이미 藝苑의 글에 나타났고 祭肉을 잘라가다가 형벌을 당한 것은 또 제사모시는 官員의 꿈에 나타났다. 거룩하신 신령이 천년에 빛났으니 엄숙한 공경을 감히 일시라도 게을리 하겠는가.

슬프다! 세월이 여러번 다시 변천되니 사당집 모양이 점차 허물어짐을 면치 못하였다. 바람과 비로 깎이여지고 물이 새니 어찌 다만 들보가 깎여지고 마룻대가 흔들리는 데만 걱정할 뿐이겠는가. 垆地가 좁고 저습하며, 또한 주춧대가 빠지고 벽이 무너질 근심도 되는지라 마음이 상하여 머뭇거리니 오히려 지나간 손님이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 많았으며 눈에 뵈는 것이 황폐하고 처량하니 어찌 일에 다달아 두렵고 두려움을 금하겠는가. 그 先祖의 大任을 맡아 감당한 것을 생각하니 누가 옛적을 느낀 회포가 없겠는가. 우리 後人의 「선령」을 받들어 모신 정성을 슬퍼하니 더욱 吾日을 슬퍼하는 탄식이 간절하다.

드디어 비읍(鄙邑)에서 修理를 거행하는 책임으로써 다행히 大瀆의 격렬(激烈)히 양양(昂揚)하시는 기풍을 만났으니 長沙(지명)에서 우(虞)나라의 사당지를 고치는 규모를 본떠서 몇번이나 문첩(文牒)을 울리어 신청하고 평양에서 기자(箕子)의 殿閣을 修理하는 예를 모방(模倣)하였으니 과연 을진(乙醜)에 아람을 올렸다. 탁지부(度支部)에 명령하여 일을 도우게 하니 本道(京畿道)에 이르러 功을 나타내다. 一心으로 경영할제 江陵의 아름다운 材木을 물에 띄워 운반하고 重城의 큰돌을 다듬어 반년이나 운반할제 장인의 무리를 뽑아 不日間에 工事를 일으키고 民衆에게 勸하되 빨리하지 말라하여도 役事를 빨리하다. 아홉간의 큰 집은 비록 옛 儀式을 고치지 안했으나 넷 시령의 층계 감실은 새 制度에 더함이 있는 듯 하였다. 엄숙하고 엄숙한 주렴과 방장(房幔)에는 거미줄에 먼지않는 재앙을 버리게 하고 평평하고 바른 널판지로 된 청(廳)에는 龍의 수염이 흠에 썩는 냄새를 끊어지게 하였다. 구름의 旗가 나무끼고 오르며 내리니 황홀히 寶馬로 강림(降臨)한것 같으며 칼찬 것이 아롱거리어 빛이 번쩍인듯 하니 다시 금빛형상으로 일어나

춤추는 것을 의심할지라. 사당의 수선(修繕)한 자취를 상고하니 비록 前代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밝은 세대의 높이어 받드는 儀式을 講究하니 오늘날보다 盛大한 것이 있지 않았다.

八方의 사람들이 싫어함이 없었으니 애오라지 父老의 즐거운 노래를 採用하리로다. 百世아래에서 祝辭있음을 받들어 敢히 兒郎의 좋은 찬송시(贊頌詩)를 드린다.

들보의 東쪽을 바라보니 금굴산(金窟山) 머리에는 새벽빛이 붉었다. 高麗의 남은 成자리 城가퀴를 손으로 가르키니 남은 백성들이 다투어 三韓을 統一한 功을 말하네. 들보의 西쪽을 바라보니 임단(臨湍)에 조수물이 물러가고 저녁연기는 희미하도다. 돌배의 소식은 누구를 통해 물겠는가. 물가에 나무는 푸른데 다만 새가 울뿐이로다. 들보 南쪽을 바라보니 감약산(紺岳山)이 공중에 뜬듯 하여 푸른 남기(嵐氣)를 그리었다. 누군가 땅의 신령이 英傑을 낳는다고 말했는가. 古來로 오직 설씨(薛氏) 宅의 사나이가 있었다. 들보 北쪽을 바라보니 오관산이 멀고 아득하게 하늘빛에 꽃았도다. 슬프게도 가을 달이 황폐된 殿臺에 비쳤는데 머리를 아미동(峨帽洞) 쪽으로 돌리니 이것이 옛적 나라였다. 들보위를 바라보니 방불하게 붉은 구름은 신선이 내린의장 같도다. 시험하여 江기를 향해 푸른 지붕의 대마루를 바라보니 화려한 집이 하늘을 통해서 웅장한 것을 비로소 알았도다. 들보 아래를 바라보니 鍾소리 비슷한 물소리가 가끔 가을밤에 울리었다. 여러 신령이 꾸짖어 禁하여 산과 언덕을 지켰으니 길이 못 龍으로 하여금 神駕를 도우게 하였다. 삼가 願하옵건대 상량(上樑)한 뒤에는 마룻대와 집기슭이 심히 고요하며 竹祭器와 나무제기로 제사드림은 定時에 하소서. 산이 우뚝 솟고 물이 흘렀으니 흥망이 運數있는 것을 어찌하겠으며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하니 향사가 다함이 없음을 기약하도다. 사간장(斯干章) 곰(熊)과 큰곰의 성서로움을 점쳐서 우리 밝은 임금을 도우시며 마땅히 풍년든 잘벼와 기장의 축원으로 하여 서민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正宗己酉(1789) 麻田郡守 韓文洪 지음.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2호)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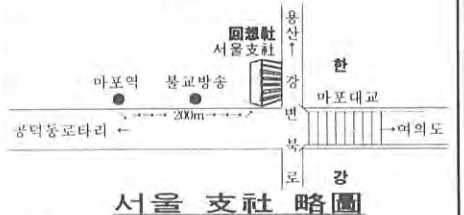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 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 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頒快完了 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安하고 快速한 方式로 移轉하여 各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 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城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

通常會費 納入者 名單

(2002.7.9~10.7)

- 6만원 : 봉수(判)
 - 5만원 : 봉묵(大), 영두(翼)
 - 3만원 : 지용(郡), 태준(按), 영수(郡)
 - 상선(提), 태철(翼), 광응(提), 경희(文)
 - 용권(典), 태균(大), 재갑(大), 대석(翼)
 - 수은(翼)
 - 2만5천원 : 희석(翼)
 - 2만원 : 인희(副), 태경(提), 이희(按)
 - 철호(提), 재우(按), 태준(翼), 재응(提)
 - 남응(提), 수영(典), 현철(翼), 원덕(按)
 - 발용(郡), 수인(翼), 춘교(典), 영준(按)
 - 정식(翼), 홍식(翼), 재성(郡), 경중(翼)
 - 재택(翼), 수진(翼), 재균(按), 노수(翼)
 - 태호(翼), 재만(翼), 태하(提), 선진(按)
 - 윤한(翼), 도식(翼), 준응(提), 송묵(郡)
 - 태환(翼), 재만(文), 태준(按), 재국(密)
 - 봉희(翼), 광희(翼), 인식(翼), 재국(典)
 - 용수(正), 수일(副), 낙용(郡), 재학(文)
 - 용식(按), 만희(按), 무명 1
 - 1만원 : 상위(開), 수중(翼), 상규(文)
 - 용득(翼), 공희(郡), 성희(翼), 영균(未)
 - 진희(按), 수하(翼), 무명 1
 - 5천원 : 재희(文)
- 계 : 1,570,000

贊助者名單 (2002.8.6~10.9)

- 50만원 : 泰麟(按, 삼부해운주식회사), 按廉使公 번동중중
 - 10만원 : 병국(翼)
 - 5만원 : 明會(文), 시목(密), 재명(사천김씨), 무명 1
 - 3만원 : 율희(翼), 영운(文), 진대(郡)
 - 종목(密), 병주(開), 원일(翼), 종식(翼)
 - 재현(翼), 율학(按), 상두(提), 선희(郡)
- 계 : 1,630,000

재사증건기금 현금자

相錫(提) 강원도 원주시 : 100,000원

입주식

在憲(翼) 경기도 구리시 : 200,000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明倫歌

67號에서 계속

부모 흠향하신 후에
유명(幽冥)중에 기쁜 마음
더욱 깊고 깊으시니
한없는 복 주시리라
절의 불공 성황(城隍) 마지(摩旨)
영신 영당(靈神影堂) 기도 말고
부모 조상 위하야라
부모 낳은 조상님이 유명(幽冥) 비록
다르지만
자손에게 향한 마음
추호 반점(秋毫半點) 다들손가
부모님과 조상님께
불효 불경(不孝不敬) 득죄(得罪)하고
관계없는 신령에게
기도 치성(致誠) 허사로다.
이치 잠깐 비교하여
미루어서 생각하라.
불경 불효하는 놈이
이웃 사는 사람에게
제아무리 잘한데도
남이 어찌 감동하라.
돌려 세고 손가락질
구석구석 죄목(罪目)이요
간곳마다 평판하며
공론 시비 분분(紛紛)할 제
무슨 말이 없을손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인리향당(隣里鄉黨) 전파하며
원근간에 낭자(狼藉)하니
어느 누가 저를 보고
사람이라 일컬을까
간데마다 실어하고
사람마다 미워하여
친지 신명까지라도
복을 빼고 재앙 주어
부지불각(不知不覺)하는 중에
은근(慫慂)하게 죄를 주니
백사불성(百事不成) 낭패하고 자연
멸망하느니라
부모 조상 받드는 게
생사간(生死間)이 일반이요

부모 조상 위하는 게
지성으로 양육하니
그대 맘을 생각하라
쓸데없는 손해로다
내 마음에 내 부모를
쓸데없다 구박하며
그 자식을 양육하여
만약 영화 구할진댄
그대 맘이 도적(盜賊)이라
부모 은정 없다 하며
그 부모의 모은 재산
무슨 일로 써 버리고
양양자득(揚揚自得)하는 뜻이 무슨
염치 그러하며
무슨 경위(經緯) 그러한가
경위 염치 불급(不及)한 일 무소불위
(無所不爲)하는 것이
그도 역시 개명(開明)인가
개명 시대 모든 학문
공직 공평 주장이면
하필 부모 자식 사이
무도 무의(無道無義) 극심한가
이치 밖의 일이다
신사회(新社會)의 뉘는 청년
부모 먼저 배척하고 전
혀 가사(家事) 불고하고
신명(身命) 보존 못하면서
구하는 게 무엇이며
바라는데 무엇인가
천하 만사하는 법이
근본부터 공고(鞏固)하여

(다음호에 계속)

정정

- 종보76호 3면 '회관수리로 면모 일신' 기사중 회관 수리에 협찬해 주신 분들중 수석부회장 안영사공과장공회장 琮會현중을 수석부회장 문은공과 장 회장 琮會현중으로 바로 잡습니다.
- 또 8면 '정기총회 찬조금 명단' 9면 문은공과 琮會는 문은공과 琮會로 바

杜門洞書院上樑文

杜門洞은 高麗의 國運이 다할 무렵 守義立節한 諸賢이 많았으니 精忠을 다하여 社稷을 衛護하려고 李太祖의 悖逆을 抗拒하고 72表義節臣들이 한 마을에 진을 치고 抗命하던 곳으로 이곳을 일컬어 杜門洞이라 하고 英宗이 杜門洞에 다 勝國忠臣今焉在 特豎其洞表其節, 御筆碑를 세워 포상을 응성히 하고 후에 그곳에 書院을 重作하고 杜門洞書院이라 名하였다.

吾宗 先祖께서는 按廉使公士廉할아 伯지가 奉安되어있다.

國事危而殺身成仁 名節易著 鼎運革而避地罔僕 蹤跡難尋 死豈易言 生亦自若 肆食薇雷首 孤竹清風不休 又採菊柴桑 五柳靖節尚可 緬惟杜門洞 七十二賢之節 會當高麗朝 五百曆數之終 獨抱綱常之大倫 深耻汚辱而苟活 寧誓死入地 不共生戴天 苦非執心之甚 貞其何歸趣之同一 但恨文獻之不顯 尚嗟褒揚之未遑 三尺洞碑 朝家之典雖盛 一間祠屋 士林之議不泯 表節舊祠 享七賢而撤矣 鳳鳴高嶂 立千仞而仰之 顯晦隨時 屈伸有數 在昔隱德三姓 而無一賢諱 至今華譜百家 而不億子孫 册祠之議一開 獻金之人四至 驗夫人心趨向 有響則必從 信乎天理循環 無往而不復 龜無可灼爨 傍舊址而開基 奕有其淵 乃趁盛夏而招匠 登登之築 乃響于空山 爍爍之光 遂生于新礎 工輪其巧 材盡其佳 昨焉鞠草而荒榛 今也茂松而苞竹 樵牧猶知其景仰 衣冠載饗其觀瞻 斯舉虹樑 可聽燕賀 一言獻頌 六偉爲歌 兒郎偉拋樑東 掛冠峴上日初紅 蔽陽笠子今猶在 不見青天表赤衷 兒郎偉拋樑南 禮成江水碧如藍 萬折必東終入海 朝宗大義也無慚 兒郎偉拋樑西 玄陵松栢冷淒淒 月滿空山花自發 年年惟有杜鵑啼 兒郎偉拋樑北 萬壽山光青不極 王孫一去不歸來 惟見空臺春草色 兒郎偉拋樑上 清明玉宇何高曠 忠魂在彼欲相招 漠漠愁雲空悵望 兒郎偉拋樑下 居人食力勤耕耨 當時言志亦如斯 淳俗從知多感化 伏願上樑之後 神祇庇護 精靈慰安 男盡忠孝 女慕順貞 人無災害 俗不澆漓 多士以寧 永世是妥

[譯文]

國事가 위태함에 목숨을 바쳐 仁義를 이루니 名節이 쉽게 드러나고, 國運이 바뀌에 거처를 피하여 臣僕을 거절하니 蹤跡을 찾기 어렵도다.

죽음을 어찌 쉽게 말하리오, 삶도 또한 스스로 괴로웠도다.

首陽山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니, 伯夷叔齊의 淸風이 아름답지 않은가?

柴桑에서 국화를 즐겼으니, 陶淵明의 靖節이 가히 훌륭하였도다.

아득히 杜門洞 七十二賢의 節義를 생각컨데, 마침 高麗朝 五百年 역사의 終局을 당했도다.

뒹뒹한 綱常의 큰 人倫을 마음속에 품고, 욕된 羞恥로 구태여 삶을 부끄럽게 여겼도다.

차리리, 죽어 땅속에 들어가기를 맹서하고, 살아서 하늘을 함께 대하고자 아니했도다.

만약 執心이 심히 굳지 않았던들, 어찌 歸嚮가 그렇게 같았리요.

다만 恨은 文獻이 드러나지 못함 이라. 석자의 洞碑는 朝家의 恩典으로 참으로 성하고, 한칸의 祠屋은 士林의 公議로 민멸되지 않았도다.

表節祠 옛 사당에 七賢을 모시다 榘철했거니, 鳳鳴山 높은 봉우리 천길인 듯 우러러 보도다. 드러나고 묻혀짐은 시기에 따르고, 구부리고 퍼짐은 운수에 있도다.

옛적 三姓이 淸德을 숨겨 一賢의 諱字도 전함이 없었는데, 지금 百家에 族譜가 환하여 子孫을 헤아릴 수 없도다.

册祠의 의논이 한번 열림에, 獻金하는 사람이 사방에 이르도다. 人心의 趨向은 주선이 있으면 반드시 쫓음을 징함하듯, 天理의 循環은 갔다 돌아오지 않음이 없음을 믿겠도다.

장소가 마땅히 없어 舊址 곁에 터를 다듬고, 때가 吉日이 있어 盛夏를 쫓아 木手를 불렀도다. 높고 높게 쌓으니 그 소리 빈 산에 들리고 반짝 반짝한 빛은 새 주춧돌에 비취도다.

工匠은 그 재주를 다하고, 材木은 그 아름다움이 좋도다. 어제는 무성한 풀과 거친 개암나무 뿐이더니, 이제는 무성한 솔과 높은 대나무 가득하도다.

樵牧도 오히려 景仰할줄 알고, 衣冠도 또한 觀瞻함을 기뻐하도다.

이제 큰 上樑을 올림에 가히 제비의 하례하는 노래를 들었고, 한 말로 칭송을 드림에 六方에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리도다.

어기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밀치니, 掛冠峴 위에 해가 처음 붉도다.

蔽陽笠 쓴 분이 지금도 오히려 있으니, 青天를 보지 않고 眞心을 포함이라. 어기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밀치니, 禮成江 물은 푸르려 쪽과 같도다.

만금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朝宗의 大義에 부끄럼이 없도다.

어기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밀치니, 玄陵의 솔과 잣나무 쓸쓸하기 그지없네. 달 밝은 空山에 꽃이 저절로 피어, 해마다 오직 두견새만 울어대누나.

어기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밀치니, 萬壽山 산빛이 푸르기 그지 없네.

王孫은 한번 떠나 돌아오지 않는데, 오직 빈 樓臺에 봄 풀빛만 보겠도다.

어기영차! 들보를 위로 밀치니, 맑은 하늘이 어찌 이다지 높은가?

忠魂이 저기에 있어 서로 부르는 듯, 아득한 구름만 덧없이 바라보네.

어기영차! 들보를 아래로 밀치니, 居人들 生計로 농사에 근심하도다.

당시에 詩歌가 또한 여기에 있어, 순후한 풍속에 感化가 많음을 알겠도다.

엿드려 원하옵건데, 地神이 돕고 도우사, 精靈을 편히 위로하소서. 남자는 忠孝를 다하고, 여자는 順貞을 염모하소서.

사람에겐 災害가 없고, 풍속은 더럽혀지지 말소서. 多士는 편안하게 永世토록 享祀를 모시소서.

부음

大宗會七代~12代 會長을 歷任하신 明會顧問室의 室人 白장미 女士께서 持病으로 입원 가료중 지난 9월 3日 別世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발인 : 2002년 9월 7일 오전 6시

• 장지 : 경북 예천 선영하

子 泰浩

로 잡습니다.

●같은면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20,000중 복희(翼)은 복희(翼)로 바로 잡습니다.

●1면 우측하단 '새로 구성된 대종회 임직원' 기사중 由는 留의 오식이었기 바로 잡습니다.

●2면 좌측하단 '飲水齋重建記念碑 謹豎 및 神道碑 里程標 豎立' 제하의 里程標는 모두 表石으로 고칩니다.